

김태수 TONYING
김솔이 SOLING
백수민 MINANG
김민재 JOSE
정수진 GORIAN

Take care!

INGAT PO KAYO

라운아띠 11기
필리핀 팡가시난팀
최종보고서

덤프사이트
DUMPSITE



DUMPSITE

10기는 덤프사이트에서 2개월간 마을 주민, 아이들과 **관계형성** 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었다. 마을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뛰어 놀다가 생긴 상처들을 치료해 줄 목적으로 **간단한 상처치료를** 시작하였고 이 활동이 본격적으로 11기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덤프사이트라는 특성상 온갖 쓰레기, 의료폐기물, 날카로운 유리조각, 화재 등 주민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0기는 3달간의 덤프사이트 활동 중 마지막 1달 기점으로 **아띠클라쎄**를 시작하였고, 연령대로 A반, B반으로 분반하여 영어기초 알파벳 수업을 진행하였다. 10기는 'Blue house'와 'Nipa Hut'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11기 때는 'Blue house'가 가동되어 대부분의 모든 활동이 'Nipa hut'에서 진행되었다.

10기는 팡가시난의 첫 기수로서 마을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11기가 아띠클라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DUMPSITE

11기는 팡가시난 Y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주부터 덤프사이트에서 10기가 해 오던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팡가시난 Y의 권유로 첫 날 방문 시 마을을 돌며 11기를 소개하였고(building relationship), 덤프사이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바로 **상처치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화재가 진압되자마자(2주 뒤) **아띠클라씨**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첫 아띠클라씨는 11기를 소개하는 ‘이름쓰기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아이들 또한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본인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수업으로 안양Y에서 배운 몸놀이 ‘당근송’, ‘비비디 바비디 부’를 시도하였으나, 몸놀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실패하였다.



DUMPSITE

첫 번째 이야기. 위생교육

스스로 세수하기, 손 씻기, 몸 씻기

위생교육은 10기가 상처치료 전 손 씻는 활동에서 시작되었고, 11기는 덤프사이트에 도착하자마자 왼쪽마을, 오른쪽마을을 돌며 아이들을 모은 후 블루하우스 옆에 위치한 펌프에서 씻었다. 세수를 위한 비누와 물통을 11기가 매번 준비해갔고, 첫 한 달 동안 아이들과 아띠들이 함께 씻었다. 씻을 때 필요한 말들(예: 손 씻자, 물로 헹구자, 발도 비벼서 씻자 등)을 따갈로그어로 준비해갔다. 두 달쯤 지났을 때는 굳이 아띠들이 씻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씻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위생교육에서의 아이들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11기는 10기가 떠난 후 활동의 공백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위생교육과 상처치료가 마을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마지막 달에 Thanksgiving의 한 프로그램으로 한 차례 기초보건위생교육을 진행하였다. 손 씻기, 기본상처치료, 화상응급처지의 내용을 담은 브로슈어와 박트로반 연고를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First Aid Kit는 오른쪽마을 Canteen 할머니께 전달하였다.

(덤프사이트 입구에 싱가포르 캠프에서 주고 간 큰 First Aid Kit도 있음)





두 번째 이야기. 상처치료

상처치료활동에 있어서 11기는 많은 고민과 토론 끝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상처치료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10기가 해왔던 활동이기도 했고, 11기는 10기의 활동의 지속성과 화재로 인하여 상처치료의 필요성이 커져 상처치료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꾸준한 위생교육과 상처치료로 인하여 아이들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고, 이 후 상처치료의 횟수를 줄여나가게 되면서 아띠클라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띠클라세

수업 때 필요한 교육용어(예; 여기 보세요, 앉으세요, 조용히하세요 등)들을 팡가시난어와 따갈로그로 준비해갔다.

수업 전 출석부를 준비해 출석을 불렀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고정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11기는 수업을 위한 자료(알파벳 플래시카드, 색연필, 차트, 크레파스, 종이 등)을 직접 준비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분반 전

위생교육, 상처치료의 활동을 거쳐 아이들이 아띠클라씨가 진행되는 Nipa hut에 모이게 되면 아띠클라씨를 시작하였다. Nipa hut의 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들이 모래 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돛자리’도 매번 준비했고, 몸놀이, 알파벳수업,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시도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그림 그리기, 미술을 통한 알파벳 배우기 방식을 고정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아이들의 교육수준상태와 연령층이 다양하여 분반하기로 결정하였다.

DUMPSITE

분반 후

1. Common English Class

-민재와 솔이가 진행.

-Eugene 과 Joan이 지속적으로 참여.

-Elementary school 재학생 대상. 영어기초회화(예;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등)

-아띠들이 준비한 노트와 볼펜으로 수업 시 dialogue를 따라 읽게 한 후, 본인이 스스로 읽게 하였으며 그 후 직접 노트에 써 보도록 교육하였다. 수업 후 노트와 볼펜은 수거해서 아띠들이 보관하였고, 매 수업 시 다시 나누어주었다.

2. Alphabet Class

-태수가 진행.

-Mary Joy, Anton, 멜라닌 등 3-4명의 아동이 참여.

-태수가 직접 준비한 개인 노트에 알파벳과 관련된 단어를 5-10번 반복적으로 쓰게 함.

-Alphabet '쓰기'에 초점을 둬. (쓰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동들의 요구)

-수업 시 제공한 노트와 크레파스는 다시 수거해서 가지고 옴.

3. Daycare Class

-수민이와 수진이가 진행.

-Common English class와 Alphabet class수업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들이 참여.

-주로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이 참여.

-아트클래스와 간단한 몸놀이 수업 진행.

-제일 많은 아동들이 참여했음.







네 번째 이야기. Feeding program

아띠클라씨 Feeding program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아띠클라씨에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스킷과 물을 feeding하였다. 이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11기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로 feeding을 실시하였다.

때때로 클라씨에 아동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 샌드위치가 남은 경우 마을 청년들에게 간식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섯 번째 이야기. Thanksgiving feeding

전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31가구) 모든 집을 방문하여 아로스칼도(닭죽)를 함께 나누었다.











MATERIAL RECOVERY & COMPOSTING FACILITY (MRCF)
SIPAN
Local Communities Bringing Government Closer to People



RaonAtti
friends
of
Asia



Pugaro

푸가로

Pugaro

10기의 인수인계로 인해 Daycare center에서의 활동 (몸놀이, 태권도 등)을 안양 Y에서부터 훈련받고 배웠다.

그러나 막상 팡가시난에 도착하고보니 Pugaro Daycare Center와 Elementary School의 방학으로 인해서 본래 계획하고 준비했던 Daycare Center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팡가시난 Y의 권유로 Pugaro Elementary school에서 Pugaro에 거주하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summer program을 운영 하게 되었다.

Pugaro

교장선생님의 요청으로 Soccer class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survey의 결과로 Art class, Music class, P.E class, Academic class(science class)를 열었다.

하지만 팡팀은 4월 한 달간 많은 외부 활동(여행, Bangus festival참가 등)으로 인해 Pugaro summer class에 집중하지 못했고 오랜 시간 수업의 공백기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 아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졌다.

따라서 5월부터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Class를 운영하고자 집집마다 방문하여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Class는 처음과 같은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 하여 실시한 350PPM Campaign을 Pugaro에서 실시하면서 summer program의 Farewell도 함께 진행하였다.





DepED PUGARO INTEGRATED SCHOOL
DAGUPAN CITY



CLOSING PROGRAM
MAY 24, 2017







2014 **350PPM** Campaign
In Pugaro, Pangasinan, Philippines

Friends of Asia **Ra****mAtti**

산타크루즈

Sta.cruz

Homestay

Sta.cruz

7월 2일부터 7월 28일(약 4주)간 Brgy. Sta cruz, San jacinto에서 Homestay를 진행했다. 아띠들 각자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맡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태수 이야기. Farming

농번기를 맞이하여 모내기로 마을에 일손이 부족 하였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찾아가서 이양 및 모내기를 함께하였다.

Homestay

Sta.cruz

수진 이야기. Brgy Health Care Center 진료보조, Farming

1) Farming

농번기를 맞이하여 모내기로 마을에 일손이 부족 하였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찾아가서 이앙 및 모내기를 함께하였다.

2) Brgy Health Care Center 진료보조

매주 화요일마다 Brgy. Health Care Center에서 방문진료를 보조했다.

Homestay

Sta.cruz

솔이 이야기. Sta.Cruz Daycare Center

Sta Cruz Daycare Center는 2013년 신설된 곳으로 솔이가 활동했던 때는 2nd Batch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 중이었다. 총 14명의 3세, 4세 유아가 Daycare Center수업에 참여하며 주중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오전 9시쯤 되면 Recess 시간으로 meriyenda를 즐기며 쉬는 시간을 갖는다. 대체로 아동의 어머니들도 함께 수업에 참여하며 수업의 분위기가 자유분방하여 아동들 또한 자유롭게 움직이고 간식을 먹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솔이는 일주일에 월, 금 몸놀이 수업과 색칠공부 수업을 진행했고, 이외에 다른 수업에서 선생님을 보조하였다.

1. 기도(수업시작)
2. 동요, 율동
3. 동화책 읽어주기(스토리텔링)
4. 알파벳 배우기 / 숫자 배우기(교과서 수업)
5. Recess(쉬는시간, 간식)
6. 색칠공부
7. 기도(수업 끝)

Homestay

Sta.cruz

수민 이야기. 간식시간 – Feeding program

일주일에 두 번 Feeding program을 진행했다. Daycare center와 초등학교 학생들 총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Feeding Program의 이름이 너무 직접적인 듯 하여 조금 더 친숙한 이름인 “간식시간”으로 바꾸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였다. 닭죽, 샌드위치, 바나나큐 등으로 간식을 만들어갔다.

민재 이야기. Music class, Bible study

1) Music class

Sta.Cruz Elementary School에서 Grade 3,4 아이들과 함께 Music Class를 진행했다. 매주 월,수,금 진행하였으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Class를 가졌다. Pop-song과, Christian song을 함께 노래했으며, 영어 가사의 이해와, 음정, 박자 등을 배웠다.

2) Bible Study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 예배 후 교회에 참석하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Bible study를 진행했다. 성경이야기와 더불어 간단한 교회 게임을 함께하며 아이들과 친목을 가졌다.











Relationship 관계



Relationship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더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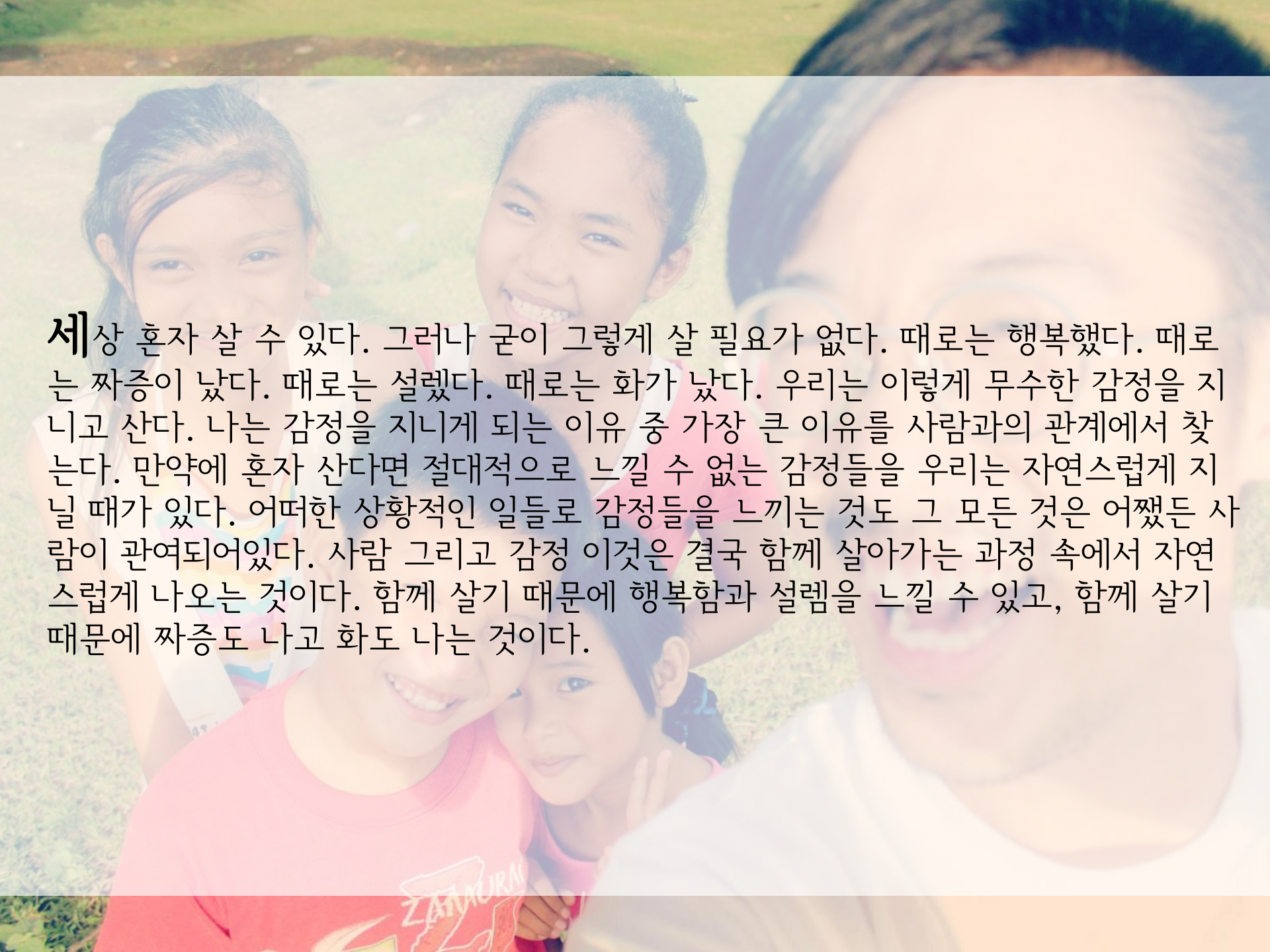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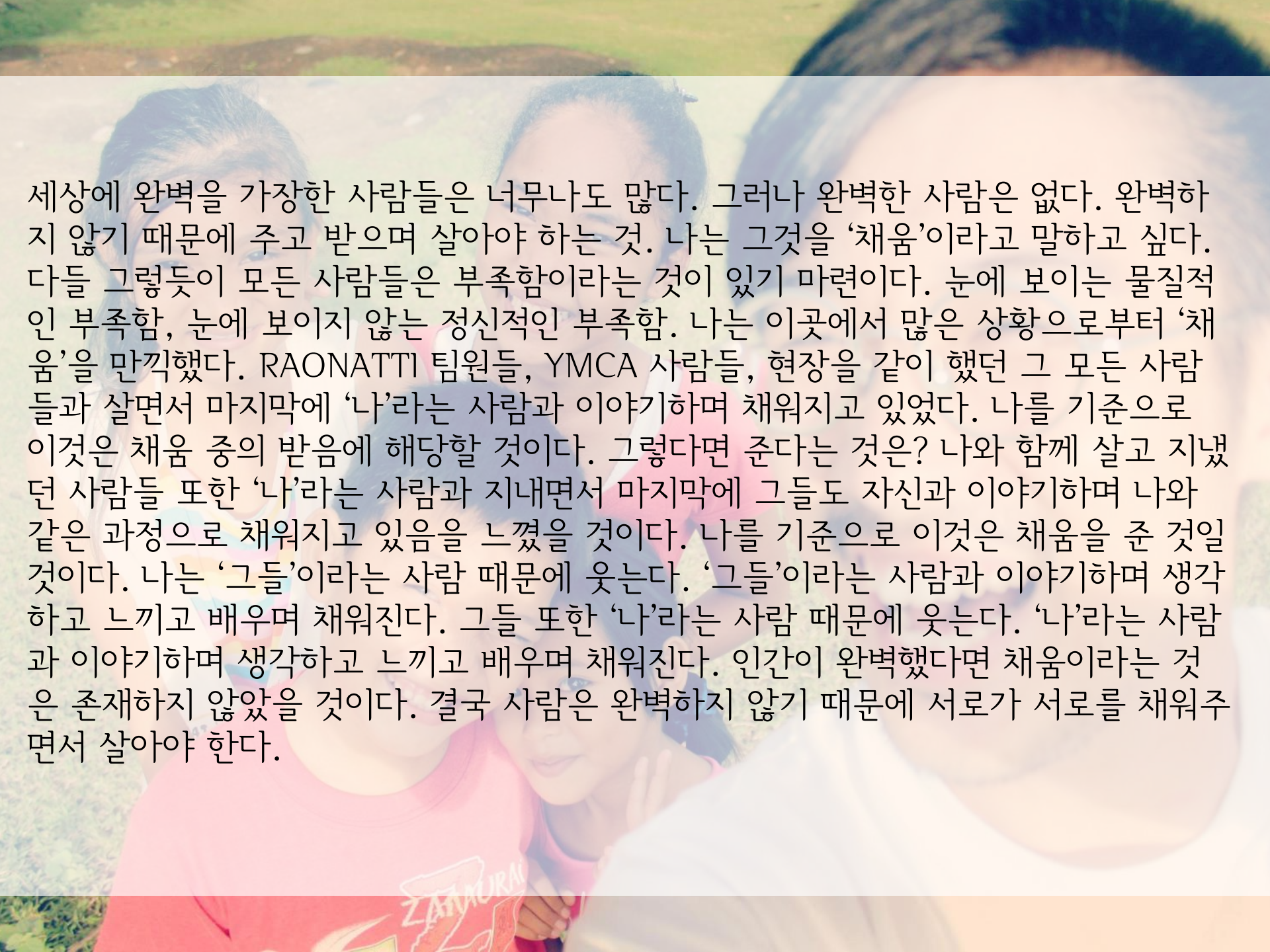


세상에 완벽을 가장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채움'이라고 말하고 싶다.

김태수 TONYING

A group of smiling children outdoors, with a close-up of a boy's face in the foreground. The text is overlaid on the image.

세상 혼자 살 수 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때로는 행복했다. 때로는 짜증이 났다. 때로는 설렘이었다. 때로는 화가 났다. 우리는 이렇게 무수한 감정을 지니고 산다. 나는 감정을 지니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는다. 만약에 혼자 산다면 절대적으로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닐 때가 있다. 어떠한 상황적인 일들로 감정들을 느끼는 것도 그 모든 것은 어쨌든 사람이 관여되어있다. 사람 그리고 감정 이것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함께 살기 때문에 행복함과 설렘을 느낄 수 있고, 함께 살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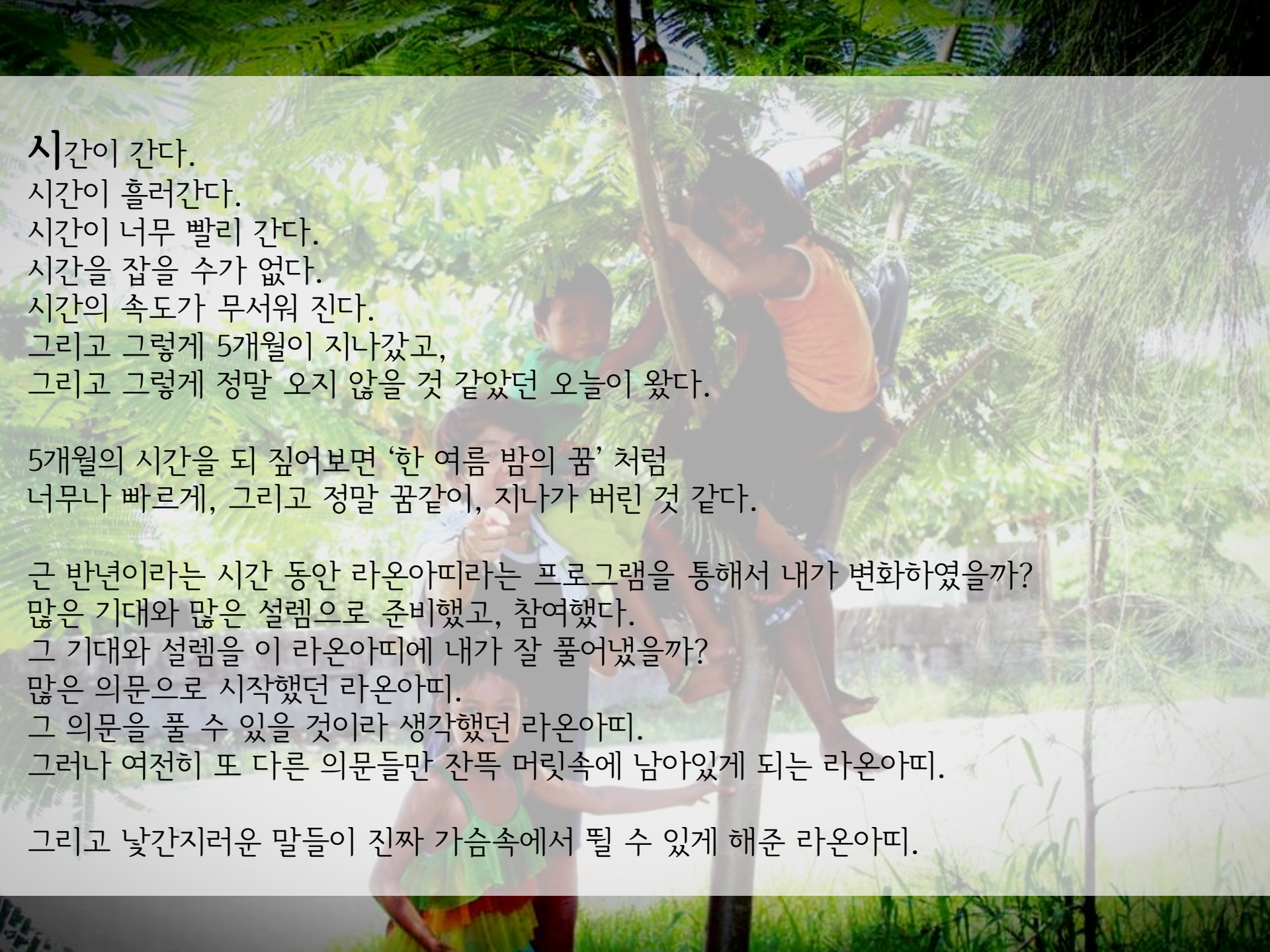


세상에 완벽을 가장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채움’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들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족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족함. 나는 이곳에서 많은 상황으로부터 ‘채움’을 만끽했다. RAONATTI 팀원들, YMCA 사람들, 현장을 같이 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살면서 마지막에 ‘나’라는 사람과 이야기하며 채워지고 있었다. 나를 기준으로 이것은 채움 중의 받음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준다는 것은? 나와 함께 살고 지냈던 사람들 또한 ‘나’라는 사람과 지내면서 마지막에 그들도 자신과 이야기하며 나와 같은 과정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나를 기준으로 이것은 채움을 준 것일 것이다. 나는 ‘그들’이라는 사람 때문에 웃는다. ‘그들’이라는 사람과 이야기하며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며 채워진다. 그들 또한 ‘나’라는 사람 때문에 웃는다. ‘나’라는 사람과 이야기하며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며 채워진다. 인간이 완벽했다면 채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살아야 한다.

세상 아이들의 웃음은 똑같다.
심지어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아이들의 웃음까지도.
아이들의 미소는 나를 절로 미소짓게하고,
이들과 같이 웃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같이 웃는 것,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 자체로 사랑이 흘러 넘친다.



김민재 JOSE

A woman and two children are climbing a tree in a lush, tropical environment. The woman is in the center, wearing a blue shirt and dark pants, reaching up to a branch. A young boy is perched on a higher branch to her right, wearing a blue shirt and dark pants. Another child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also climbing. The scene is set against a backdrop of dense green foliage and palm trees, with a body of water visible in the distance. The overall atmosphere is one of active participation and connection with nature.

시간이 간다.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

시간의 속도가 무서워 진다.

그리고 그렇게 5개월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오늘이 왔다.

5개월의 시간을 되 짚어보면 ‘한 여름 밤의 꿈’ 처럼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정말 꿈같이, 지나가 버린 것 같다.

근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온아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였을까?

많은 기대와 많은 설렘으로 준비했고,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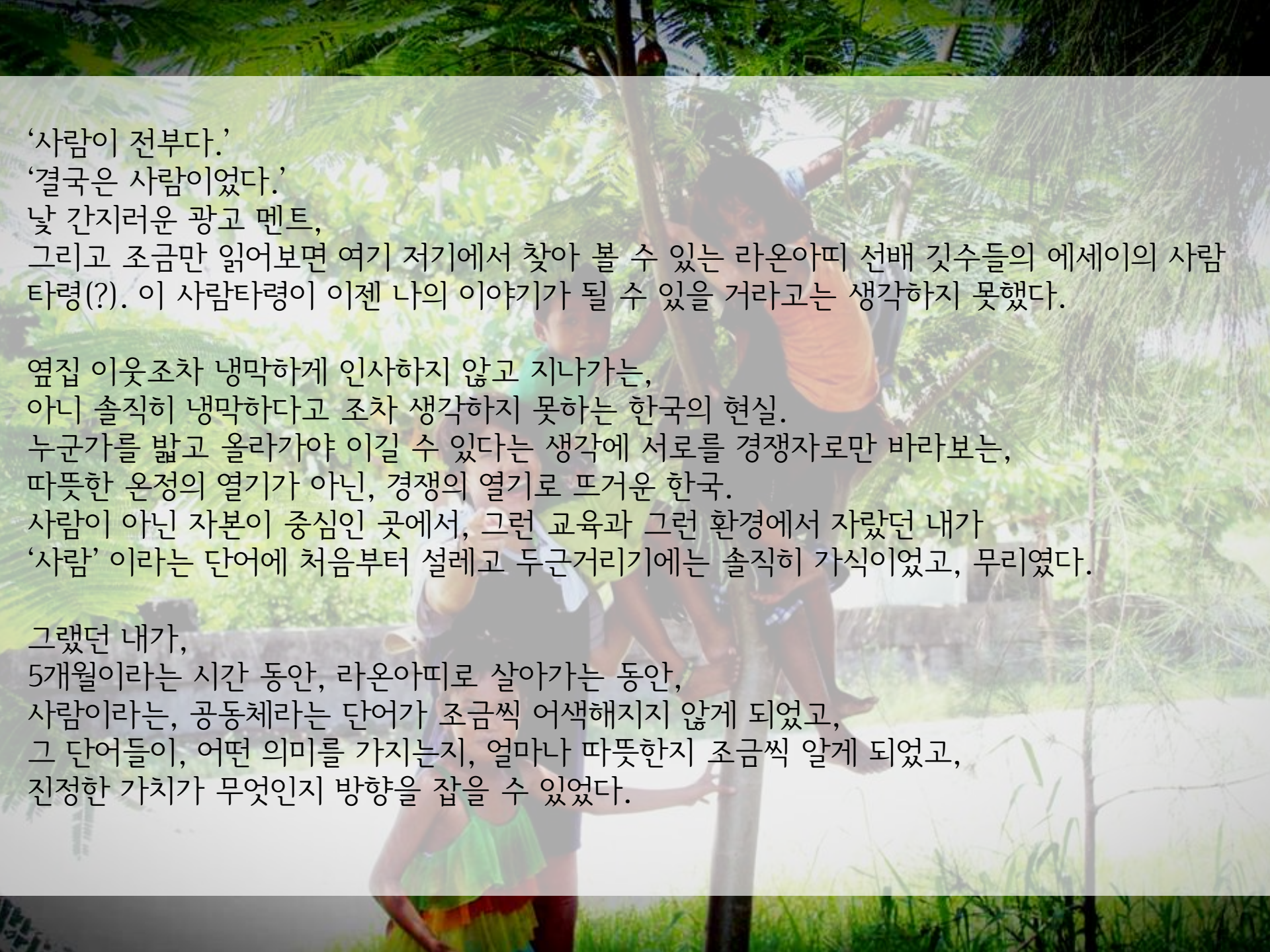
그 기대와 설렘을 이 라온아피에 내가 잘 풀어냈을까?

많은 의문으로 시작했던 라온아피.

그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라온아피.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의문들만 잔뜩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라온아피.

그리고 낮간지러운 말들이 진짜 가슴속에서 뿜 수 있게 해준 라온아피.



‘사람이 전부다.’

‘결국은 사람이었다.’

낯 간지러운 광고 멘트,

그리고 조금만 읽어보면 여기 저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라온아띠 선배 깃수들의 에세이의 사람 타령(?). 이 사람타령이 이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옆집 이웃조차 냉막하게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아니 솔직히 냉막하다고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를 경쟁자로만 바라보는, 따뜻한 온정의 열기가 아닌, 경쟁의 열기로 뜨거운 한국.

사람이 아닌 자본이 중심인 곳에서, 그런 교육과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내가 ‘사람’이라는 단어에 처음부터 설레고 두근거리기에는 솔직히 가식이었고, 무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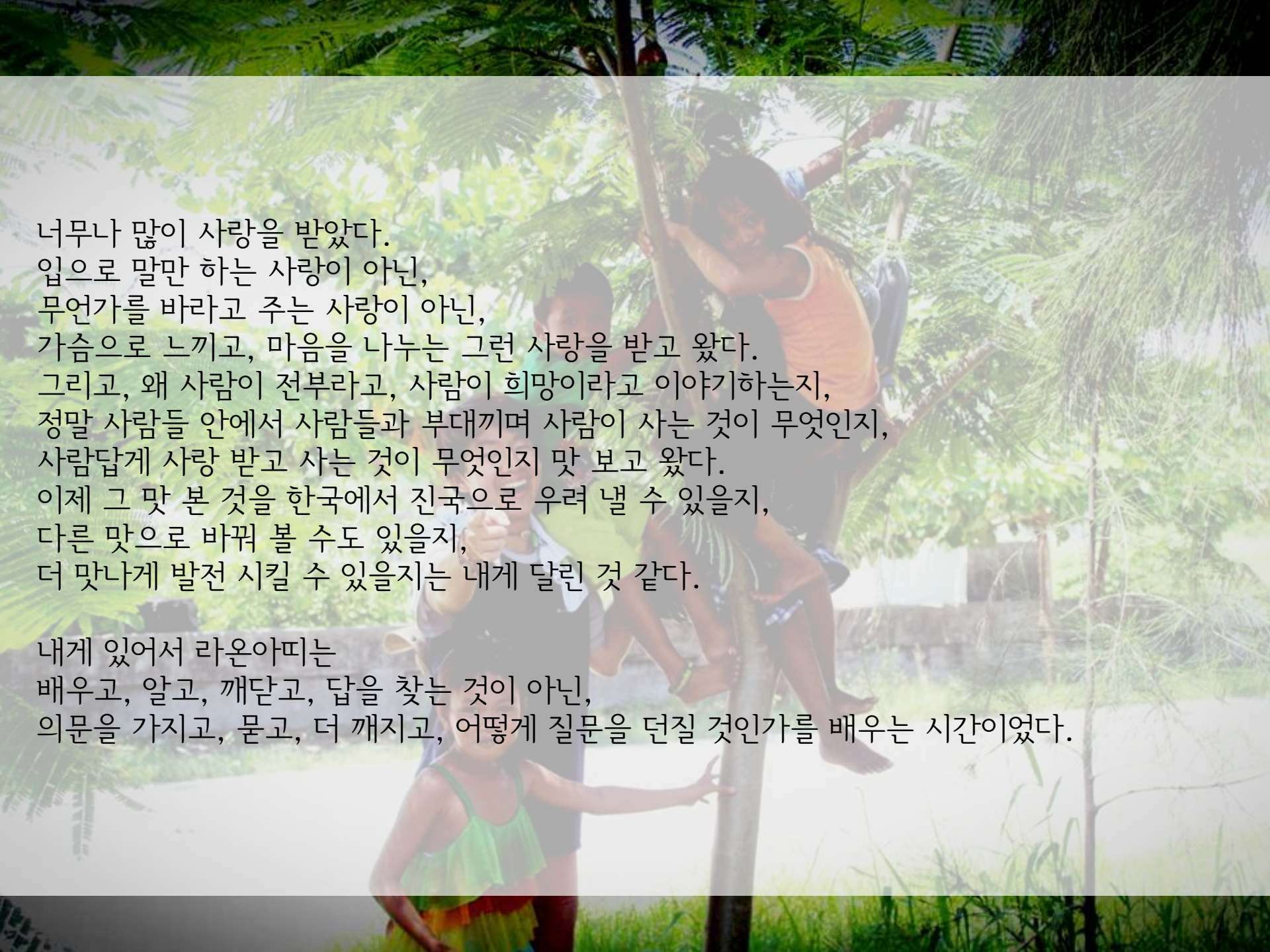
그랬던 내가,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라온아띠로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라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조금씩 어색해지지 않게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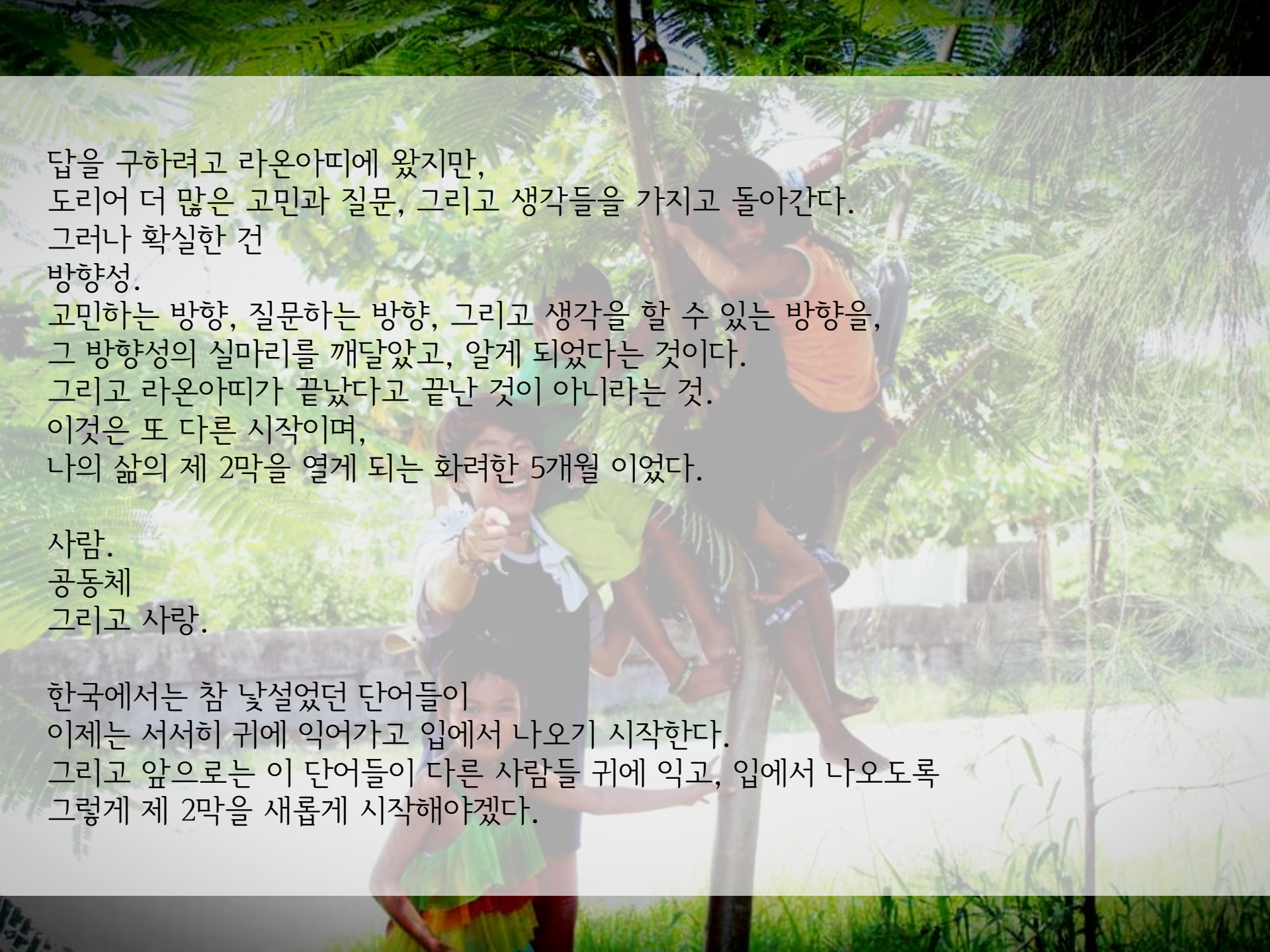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따뜻한지 조금씩 알게 되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너무나 많이 사랑을 받았다.
입으로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닌,
무언가를 바라고 주는 사랑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받고 왔다.
그리고, 왜 사람이 전부라고, 사람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랑 받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맛 보고 왔다.
이제 그 맛 본 것을 한국에서 진국으로 우려 낼 수 있을지,
다른 맛으로 바꿔 볼 수도 있을지,
더 맛나게 발전 시킬 수 있을지는 내게 달린 것 같다.

내게 있어서 라온아피는
배우고, 알고, 깨닫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닌,
의문을 가지고, 묻고, 더 깨지고, 어떻게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답을 구하려고 라온아띠에 왔지만,
도리어 더 많은 고민과 질문,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나 확실한 건
방향성.

고민하는 방향, 질문하는 방향,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그 방향성의 실마리를 깨달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온아띠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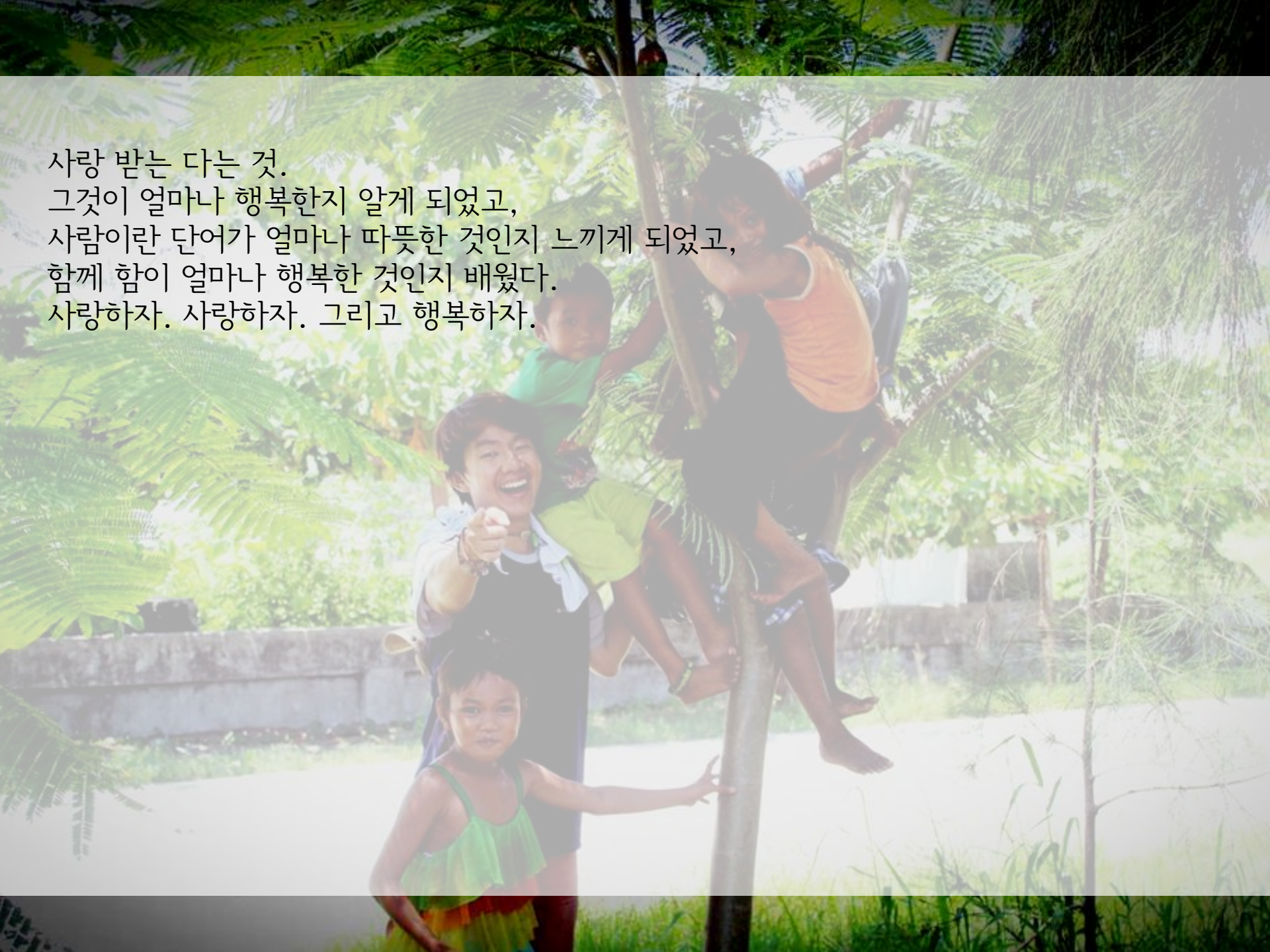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며,
나의 삶의 제 2막을 열게 되는 화려한 5개월 이었다.

사람.
공동체
그리고 사랑.

한국에서는 참 낯설었던 단어들이
이제는 서서히 귀에 익어가고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단어들이 다른 사람들 귀에 익고, 입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제 2막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사랑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고,
사람이란 단어가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고,
함께 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배웠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리고 행복하자.



어느 누구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공백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며 으르렁 대면서도, 속으론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린 미우면서도 밉지 않은. 그런 애뜻한 사이가 되었다.



정수진 GORIANG

항상 지금 서 있는 곳 보다 조금 더 넓고 큰 곳을 꿈꿔왔던 나.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어 왔던 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을 일구기 위하여 나는 이제껏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어 왔다. 그러다 보니 난 때때로 삶의 방향을 잃었고, 속이 텅텅 빈 깡통과도 같았다.

이곳에서 나는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 때문에 내가 아예 사라져 아프기도 했고, 이런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듯한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왜 좀 더 가지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아쉬워하며 한없이 작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나였기에 나는 이곳에서 채울 것이 많았다.

아니. 사실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다.

나도, 아피들도, 팡가시난 Y친구들도, Dumpsite 사람들도, Pugaro 사람들도, Sta.cruz 사람들. 우리 모두다.

어느 누구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공백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며 으르렁 대면서도, 속으론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린 미우면서도 밉지 않은. 그런 애뜻한 사이가 되었다.

필리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향한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솔직하게, 이 전까지는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나오는 거리가 먼 이야기. 그저 '다른'사람의 이야기였고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정말로 아끼는 옆집 꼬마아이의 아빠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홈스테이 언니의 남편이, 나의 단짝 친구의 친척이 한국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득 깨달았다.

머나먼 이국땅인 한국에서, 단지 물질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그들이

고향에선 누군가의 든든한 배우자이자, 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이자, 사랑스런 딸이고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전에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나서는, 혹여 그들이 한국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진 않을까 괜시리 걱정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 내가 그들의 친구가, 가족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구촌'이라는 단어.

전엔 가슴에 전혀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젠 너무나도 공감되는, 내가 좋아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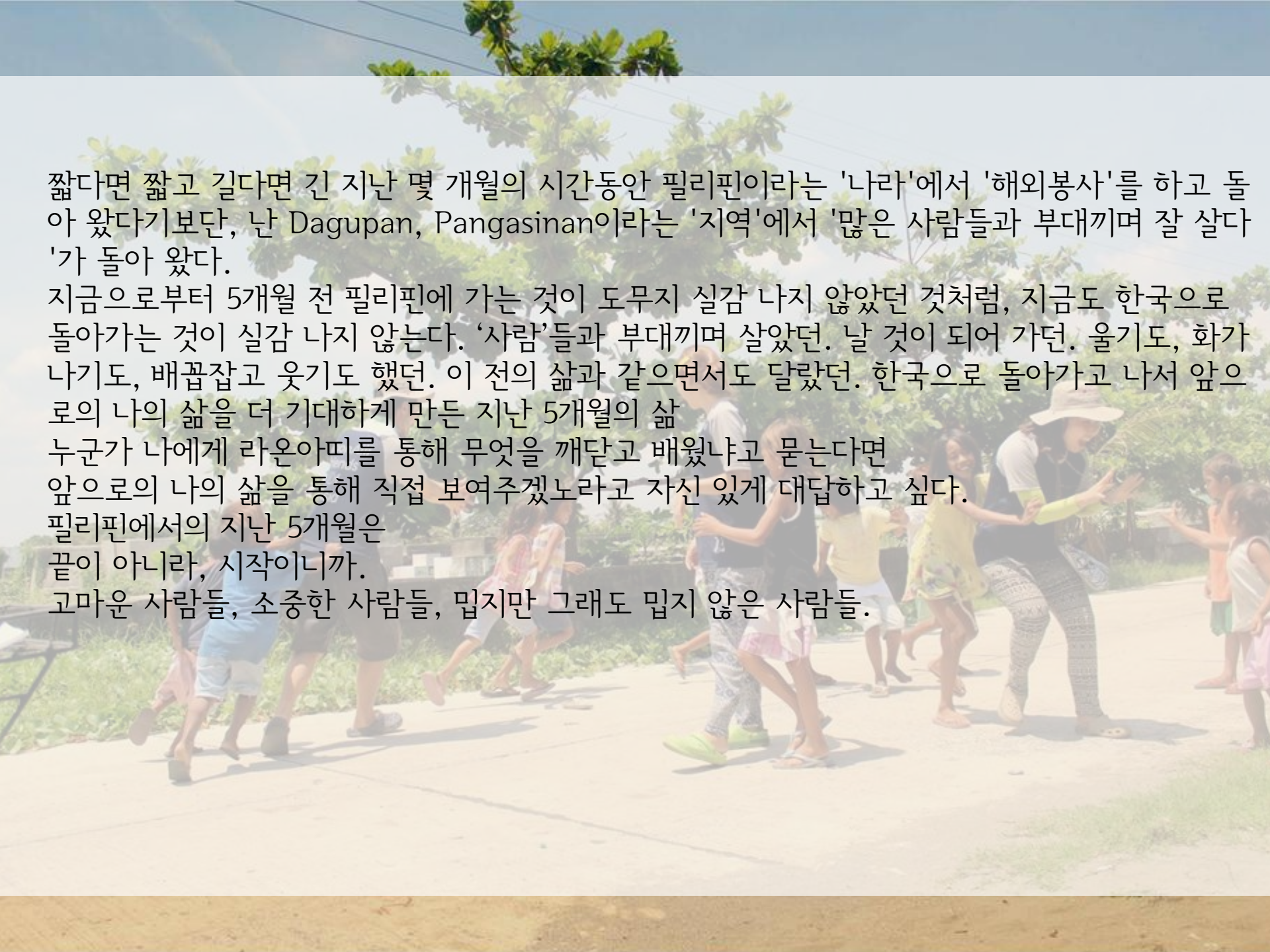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난 몇 개월의 시간동안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해외봉사'를 하고 돌아 왔다가보단, 난 Dagupan, Pangasinan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잘 살다'가 돌아 왔다.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필리핀에 가는 것이 도무지 실감 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던. 날 것이 되어 가던. 울기도, 화가 나기도, 배꼽잡고 웃기도 했던. 이 전의 삶과 같으면서도 달랐던.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더 기대하게 만든 지난 5개월의 삶


누군가 나에게 라온아띠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배웠냐고 묻는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겠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다.

필리핀에서의 지난 5개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고마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밋지만 그래도 밋지 않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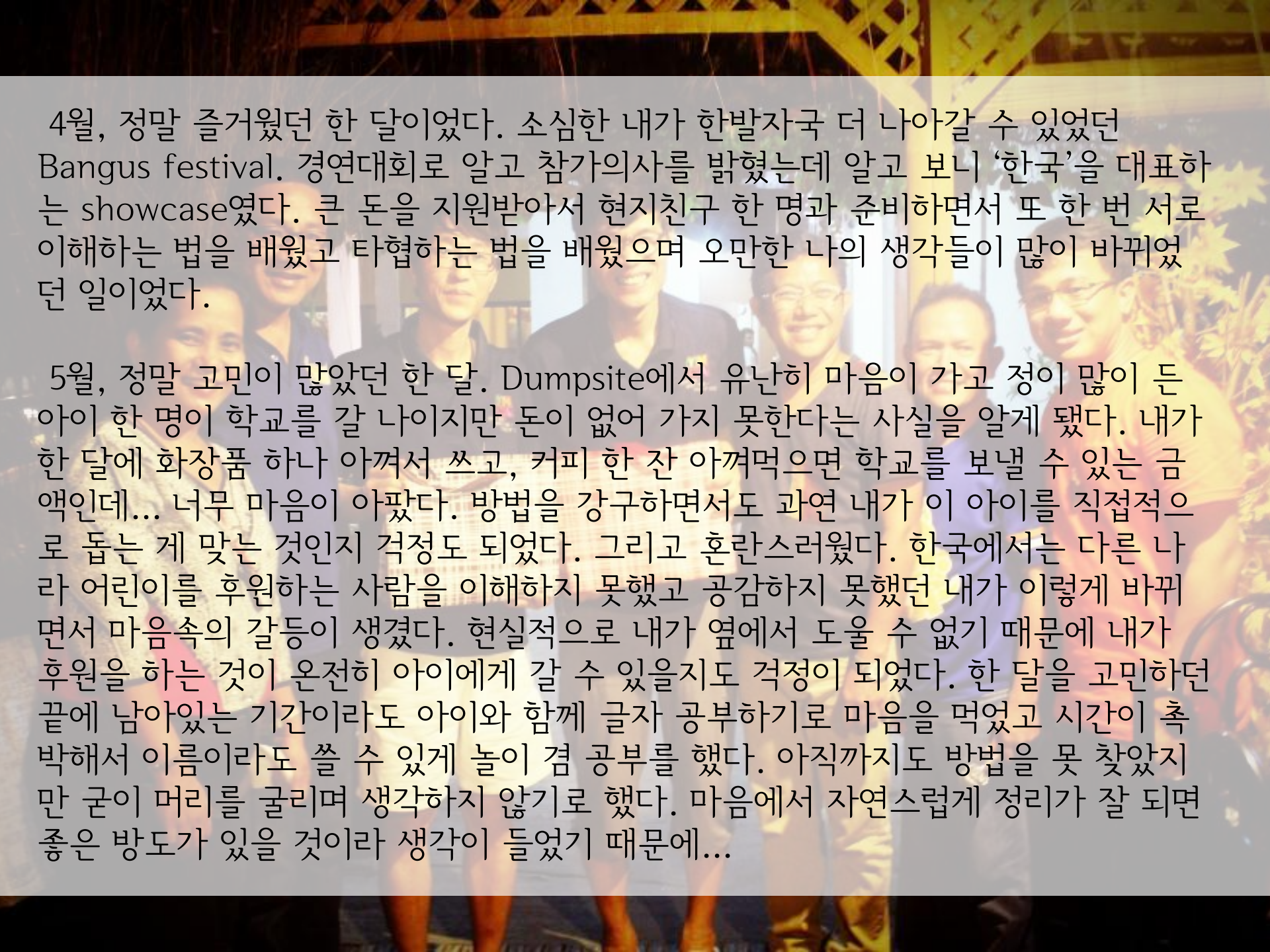
백수민 MINANG



중간평가에서 소천하신 문홍빈총장님과의 즐거웠던 추억들.
계실 때 이렇게 좋고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다가 그때서야 알게 되어서 너무 힘들고 슬펐었지만 소천하신 이후로
나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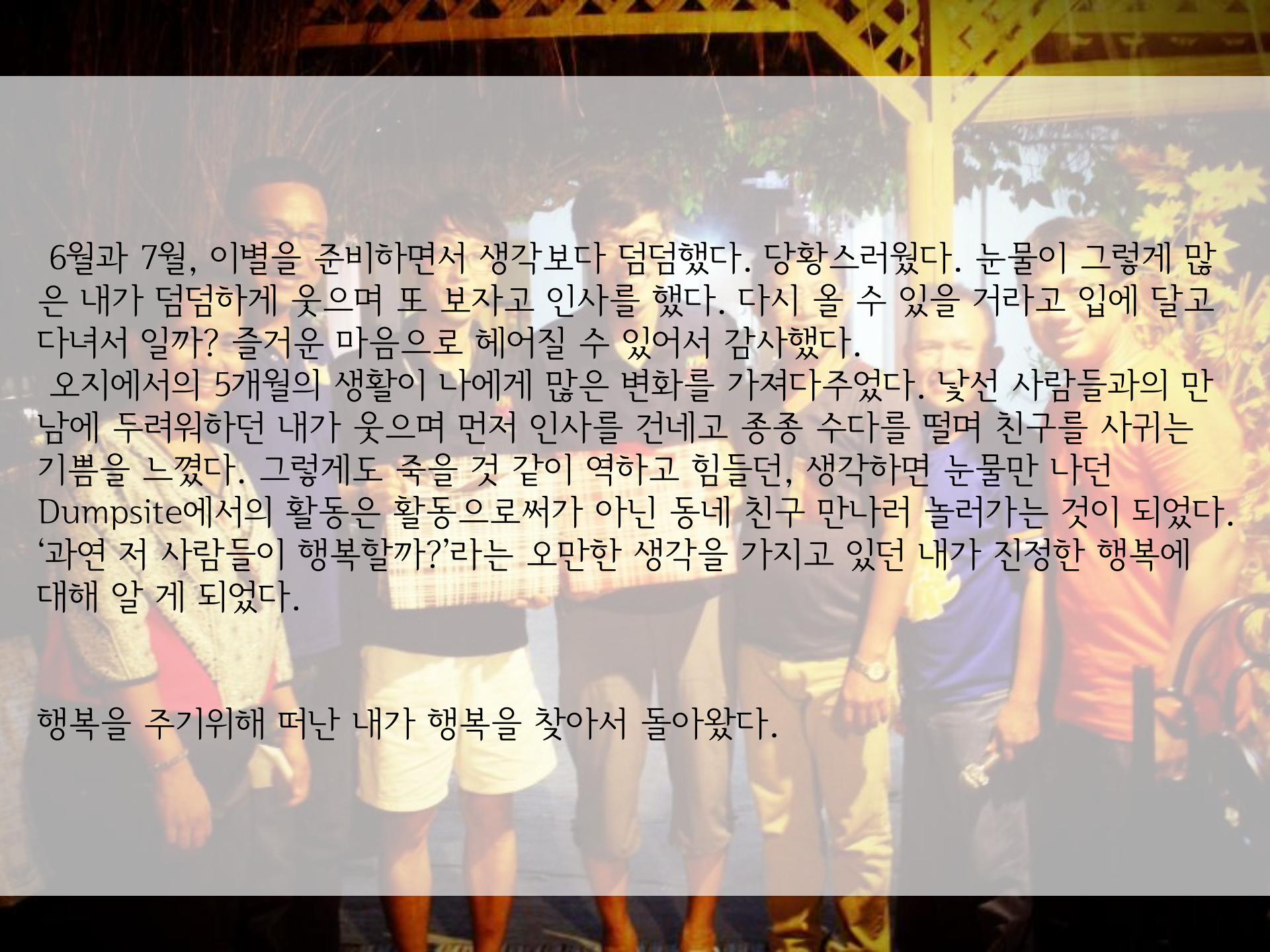
벌써 5개월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필리핀이라는 낯선 국가에 가서 5개월을 지낸다는 것 자체가 어찌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한 번 안 해본 나에게 무모한 도전이었다. 라온아띠를 지원할 때 나에게 가장 힘들 것 같던 필리핀이 가기 싫었는데 최종합격이 필리핀으로 됐다. 위생에 유난히 예민한 내가 Dumpsite라는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싶었고 출국 전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다.

3월, 역시 dumpsite를 처음 갔던 날, 나는 밥을 입에 대지도 못했고 환경에 대한 충격으로 울기만 했다. 쓰레기를 줍는 부모님들은 바빠서 어린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이들의 눈, 코, 입에는 수많은 파리가 붙어있었다. 개의치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팀원들이 웃으며 첫인사를 할 때 나는 과연 내가 안녕하냐고 묻는 게 맞는 것인지 몰라 웃지도, 인사하지도 못했었다. 첫 활동을 시작하기 무섭게 큰 화재가 났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화상 기초 치료를 도우면서일까?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갔고 남들보다 예민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참는 법을 배웠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4월, 정말 즐거웠던 한 달이었다. 소심한 내가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던 Bangus festival. 경연대회로 알고 참가의사를 밝혔는데 알고 보니 ‘한국’을 대표하는 showcase였다. 큰 돈을 지원받아서 현지친구 한 명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타협하는 법을 배웠으며 오만한 나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던 일이었다.

5월, 정말 고민이 많았던 한 달. Dumpsite에서 유난히 마음이 가고 정이 많이 든 아이 한 명이 학교를 갈 나이지만 돈이 없어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한 달에 화장품 하나 아껴서 쓰고, 커피 한 잔 아껴먹으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 방법을 강구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돕는 게 맞는 것인지 걱정도 되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바뀌면서 마음속의 갈등이 생겼다. 현실적으로 내가 옆에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후원을 하는 것이 온전히 아이에게 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다. 한 달을 고민하던 끝에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아이와 함께 글자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시간이 촉박해서 이름이라도 쓸 수 있게 놀이 겸 공부를 했다. 아직까지도 방법을 못 찾았지만 굳이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잘 되면 좋은 방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A group of people, including men and women, are standing outdoors under a wooden trellis structure. They appear to be in a social setting, possibly a garden or a community area. The lighting is warm, suggesting it might be late afternoon or early evening. The people are dressed in casual clothing, and some are smiling, creating a positive and relaxed atmosphere.

6월과 7월, 이별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덤덤했다. 당황스러웠다. 눈물이 그렇게 많은 내가 덤덤하게 웃으며 또 보자고 인사를 했다.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입에 달고 다녀서 일까? 즐거운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지에서의 5개월의 생활이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 두려워하던 내가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고 종종 수다를 떨며 친구를 사귀는 기쁨을 느꼈다. 그렇게도 죽을 것 같이 역하고 힘들던, 생각하면 눈물만 나던 Dumpsite에서의 활동은 활동으로써가 아닌 동네 친구 만나러 놀러가는 것이 되었다. ‘과연 저 사람들이 행복할까?’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가 진정한 행복에 대해 알게 되었다.

행복을 주기위해 떠난 내가 행복을 찾아서 돌아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집에서는 ‘굳것질거리’는 찾아볼 수 없었고, 굳것질이 하고 싶었던 나는 몰래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먹곤 했다. 차마 집에 들고 가지 못한 이유는 엄마의 미안하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였다. 짧은 생각이었다.

그런 철부지 딸을 한국으로 보내던 마지막 날, 멀리 가는 딸을 배웅하겠다며 엄마는 내가 머무는 도시로 찾아왔다. 엄마에게 잘 왔냐며 인사하려고 올라탄 지프니에서 엄마는 가방에서 과자 두 봉지를 꺼냈다. 돌아가는 길 친 구들이랑 나누어 먹으라고 했다.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났다. 우리 집에 와주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뽀뽀 해주던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다. 부족해도 그저 가족끼리 서로를 다독이며 서로의 힘에 기대 사는 행복한 가족을 만난 나는 복덩이다.



김솔이 | SO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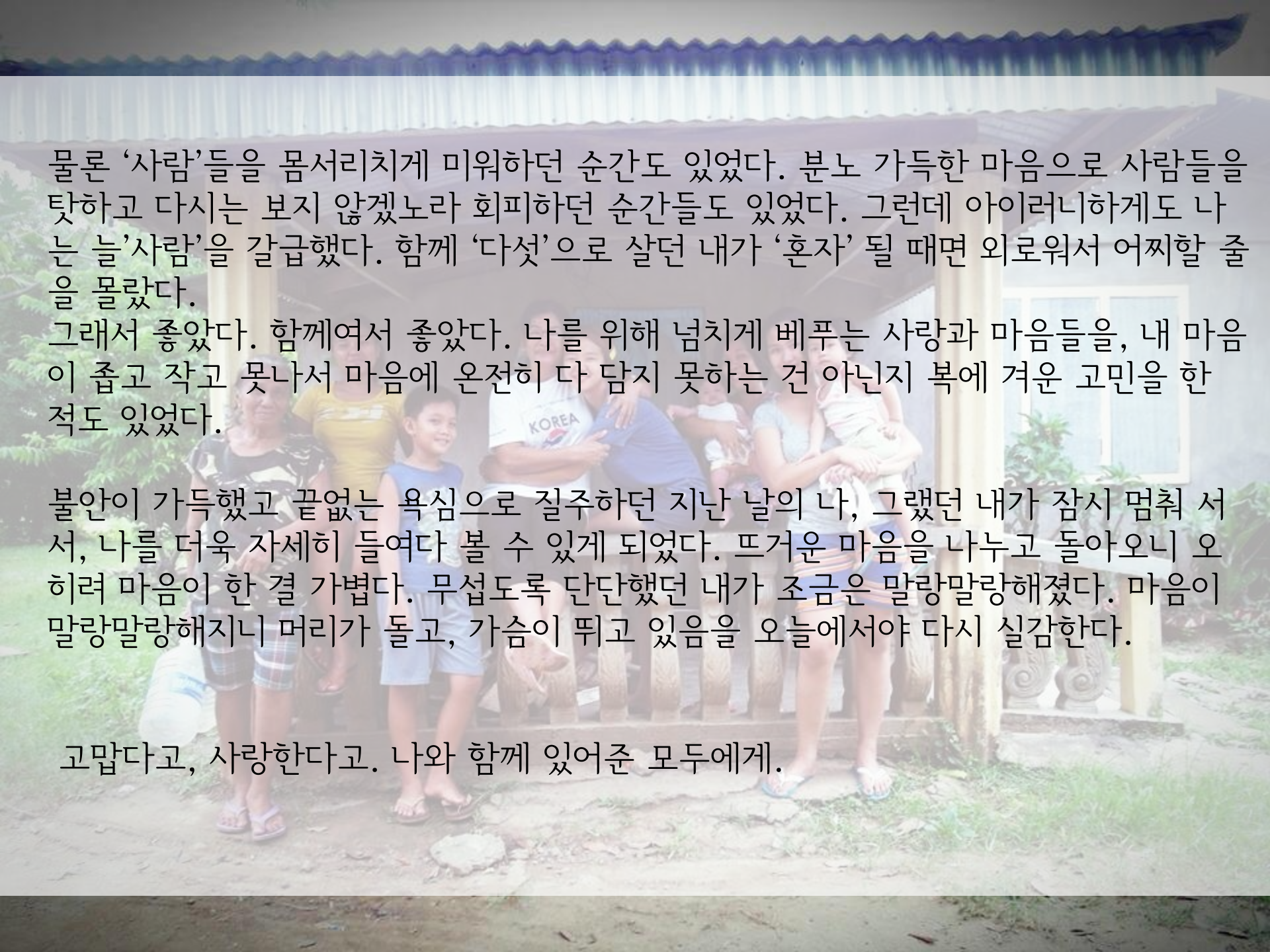
단 꿈을 꾸는 것 같다.

추운 겨울,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몸과 마음이 바싹 말라서 거칠다 못해 날카로웠던 내가 생각났다. 나는 너무 단단했다. 단단하다 못해 항상 누군가 다쳐야 혹은 무언가 부러져야 끝이 나는 독한 사람이었다.

내 세상 속에 갇혀 살던 내가 그 곳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과 살을 부대꼈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사람’들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났다.

나를 마주하는 사람들이 나를 한 꺼풀 벗겨낼 때면 뭔가 두려운 것처럼 나는 한 발짝 물러서곤 했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에게 나는 작은 틈도 열고 싶지 않아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그런 나를 진득하게 기다려 준 사람들이 있었다. ‘아시아의 좋은 친구, 라온아띠’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다. 그들을 볼 때면 정말 낯선 사람처럼 신기하다가도 때론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친숙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그들, ‘사람’들을 보며 나 자신을 다독이고, 나 또한 누군가를 다독이기도 했다.



물론 '사람'들을 몸서리치게 미워하던 순간도 있었다. 분노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탓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노라 회피하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늘 '사람'을 갈급했다. 함께 '다섯'으로 살던 내가 '혼자' 될 때면 외로워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좋았다. 함께여서 좋았다. 나를 위해 넘치게 베푸는 사랑과 마음들을, 내 마음이 좁고 작고 못나서 마음에 온전히 다 담지 못하는 건 아닌지 복에 겨운 고민을 한 적도 있었다.

불안이 가득했고 끝없는 욕심으로 질주하던 지난 날의 나, 그랬던 내가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뜨거운 마음을 나누고 돌아오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볍다. 무섭도록 단단했던 내가 조금은 말랑말랑해졌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니 머리가 돌고, 가슴이 뛰고 있음을 오늘에서야 다시 실감한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있어준 모두에게.

아시아의 좋은 친구, 라온아띠.
11기 필리핀 팡가시난팀

Goodbye, Enjoy!

